

재정 조기집행 약발은 아직...

공공건설만 '반짝'... 소비 활성화 등 서민경제엔 미흡

광주시와 전남도 등 자치단체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큰 실효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

행정기관의 예산 조기집행에 따라 공공부문 건설은 '반짝' 숨통이 트이고 있지만,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미지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각 자치단체는 조기집행에만 열을 올리고 있을 뿐 이에 따른 효과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기집행인지, 실적 쌓기를 위한 조기집행인지 분간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

해 지난 1월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들은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하고 재정 조기집행 및 일자리창출 사업 등에 나섰다.

이에 따라 13일 현재 광주는 올 상반기 목표액 1조4천921억원 대비 1조3천292억원을 집행해 89.1% 집행률을 기록,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행안부로부터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게 됐다.

전남도도 목표액 2조5천800억원 대비 1조3천3천억원을 집행해 72.7%의 집행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남도내 22개 시·군도 1조5천8천억원을 집행해 51.9%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사실상 광주와 전남에 6조원 가까운 돈이 풀린 셈이다.

그러나 광주·전남지역의 각종 경제지표는 상황이 크게 호전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서비스업 업황과 소비는 아직까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최근 광주·전라권 경제동향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서비스업 업황의 부진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소매유통업 매출 실적이 부진했고 음식점체 수도 소폭 감소했다.

광주·전남지역 올 1/4분기 비제조업 매출 BSI(기업경기실사지수·기준치 100)는 62로 전년 4/4분기 74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전남지역 음식

점수는 전년 3월 1만6천611개에서 올 3월 1만6천591개로 줄었다.

서비스업 취업자 수도 전년 4/4분기 6천800명 감소에 비해 올 1/4분기 2만8천900명이 감소하는 등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다.

다만, 공공부문 건설 발주에 대한 조기집행이 늘면서 신설법인 수는 4월 들어 건설업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재정 조기 집행의 수혜자들이 건설 업체가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지 않는 등 자금의 흐름이 왜곡돼 고용창출 효과 등 시장경기에 반영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강진청자 유럽순회전' 프랑스 파리전시회 첫 날인 12일(현지시간) 프랑스 도자기 전문가 장 지렐(맨 왼쪽)씨와 황주홍(맨 오른쪽) 강진군수 등이 강진청자를 살펴보고 있다.

유럽 홀린 강진 청자

파리전시회 관람객들 "한편의 詩 같은 느낌"

파리=정상필특파원

유럽인들이 천년 비색 강진 청자(靑瓷)의 신비함에 흠뻑 빠졌다.

12일 오후 7시(현지시간) 파리 시내 세마(SEMA·Societe d'Encouragement aux Metiers d'Art·공예촉진협회) 갤러리에서 현지 관계자와 황주홍 강진군수, 이삼현 강진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강진청자 유럽순회전'의 프랑스 파리 전시회 개막 행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청자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찼다.

전시회에는 국보급 청자 2점 연꽃무늬 대접(12세기·청자양각연판문대접)과 물가풍경무늬 병(14세기·청자상감유로수문병) 등을 비롯한 55점이 선보였다. 전시회장을 찾은 현지인들은 전시회 청자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펴보는 등 깊은 관심을 드러냈으며, 특히 청자의 독특한 빛깔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공예 작가이자 대학 교수인 안느 다오메시는 "중국이나 일본 청자만 봤지 한국에서 청자를 만드는데는 처음 알았다"며 "검은색 흙이 변해 이처럼 아름다운 색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말했다.

전시회장 한 쪽에서 열린 시연장에서는 작가가 초벌구이 전 단계의 자기에 손으로 여러 문양을 세밀하게 조각하자, 이를 지켜보던 프랑스인들의 감탄사가 이어졌다.

갤러리 관계자 올리비에 브로쉴씨는 "청자에 표현된 구름이나 연꽃 등을 보며 한 편의 시(詩)를 접한 듯한 느낌을 받았다"며 "시간을 뛰어넘은 것 같은 청자의 매력이 환상적이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청자의 우수성을 세계인에 알리는 것 외에 작품 판매로도 재미를 보고 있다. 국보급 진품 외의 청자들은 50~3천 유로(약 9만~500만원)에 현지 구매가 가능하다. 250여 점의 작품이 유럽에 공수해 현재까지

7점(200만원 상당)이 판매됐다.

순회전은 지난 4월9일 강진군 자매도시인 네덜란드 흐르름에서 시작해 이탈리아 로마를 거쳐 3천여 명이 다녀갔다.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순회전은 관람객과 전시장 측의 요청에 따라 2~4일간 연장 운영되기도 했다.

파리 전시회 이후 독일 베를린, 영국 런던 등 총 8개국 9개 도시에서 오는 9월30일까지 열리는 이번 순회전은 지난 2006년 프랑스 파리 및 리모쥬, 2007년 일본, 2008년 미국에 이어 4번 째다. /camus@kwangju.co.kr



초등생의 슬기, 아버지 목숨 구했다

인터넷 배워둔 심폐소생술로 심장 발작 아버지 응급처치

광주 방림초 이유중군

"새벽에 어머니가 다급히 부르는 소리에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보니 숨을 못 쉬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보고 공부한 대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어요. 이런 일을 대비해 미리 공부해 둔 게 큰 도움이 됐죠."

광주의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으로 혼자 배운 심폐소생술을 이용해 심장 발작을 일으킨 아버지를 구해 화제다.

지난 11일 새벽 1시20분 광주시 남구 방림동 이모(50)씨의 집에서 이씨가 심장 발작을 일으켰다.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이씨의 부인 윤모(46)씨는 남편의 인기척이 느껴져 바로 일어났고 숨을 쉬지 못하는 남편을 본 후 아들 유

중(13·방림초 6년)군을 다급하게 불렀다. 딸(23)마저 할머니 집에 가 있는 상태에서 믿을 사람을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뿐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뜻밖에도 이유중군은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를 듣자마자 잠에서 깨 119에 신고한 후 득달같이 아버지에게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기도를 확보하고 인공호흡, 심장압박 등 차분히 3~4분간 이어진 심폐소생술로 아버지 이씨의 의식은 조금씩 돌아왔다.

결국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남소방서 봉선119안전센터 구조대는 응급처치를 하며 전남대 병원으로 이씨를 이송했으며 이날 오후 이씨의 의식은 돌아올 수 있었다.

이유중군의 이 같은 침착한 행동은

지난해 12월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쓰러진 후 준비돼 왔다. 당시에도 이유중군은 아버지가 쓰러지자 곧바로 119에 전화해 빠른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지만 자신이 가족을 지켜야 하겠다는 결심을 한 것이다. 이후 인터넷을 보고 심폐소생술 이론 공부를 했으며 틈나는 대로 어머니와 누나를 대상으로 실습했고, 배계를 이용한 연습도 했다.

이유중군은 "지난해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 직접 도움을 드리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려 응급처치법을 배웠다"며 "아들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너무 칭찬해 주셔서 오히려 쑥스럽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봉선119안전센터 정 구조사방교는 "심장마비로 호흡과 맥박이 정지되면 4



인터넷에서 배운 심폐소생술로 아버지를 살린 이유중 군이 병실에서 아버지를 간호하고 있다.

분 이후부터 뇌가 손상을 입기 시작한다"며 "이유중군의 침착한 응급처치가 아버지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고 말했다.

/강필상·김형호기자 kps@

